

국제적 외교 · 군사 상황과 북한 문제: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 · 북 관계

현승수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hyunss@kinu.or.kr

I. 머리말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1년 반이 지나도록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은 소모전과 장기전 양상을 보이며 교착 국면에 빠졌고,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 연대감을 표시하며 지원을 장담하던 서방 국가들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중동에서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2023년 11월 13일 현재 1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며 대참사를 빚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역 분쟁 차원을 넘어 미 ·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전면 대결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과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명하는 중동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탈냉전 30년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두 개의 전쟁은 한반도에도 그림자를 드리운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급속도로 밀착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러 · 북 간 군사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탄과 탄약, 재래식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에 북한이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러시아는 북한에 고급 군사 기술과 첨단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의 일부가 북한에서 건너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북한의 대(對)중동 무기 수출과 군사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중동은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하며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연계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산할 수 있고 그 배후에 러시아와 북한이 노리는 미국 단극 체제 종식의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다.

이 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부상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 동향을 살펴보고 양국 간 군사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이-팔 전쟁이 북한 및 러시아와 갖는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러·북 반미 연대가 국제질서 변화에 미칠 파장도 분석한다.

II. 러·북 정상회담과 군사 협력 가능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멀리 떨어진 한반도를 격랑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국이다. 북한은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무조건 지지를 선언했다. 전쟁 직후 열린 유엔 총회에서 대러 규탄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을 때 북한은 시리아, 벨라루스 등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축출하기로 한 결정에도 북한은 반대했다. 2022년 9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은 4개 지역을 합병하자 북한은 이를 즉각 승인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미국과 나토(NATO)에 돌리고, 이에 맞서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는 러시아의 ‘대의’를 극찬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한 전호(참호)’에 서 있을 것이라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발언 이후,¹⁾ 러시아 관·학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러·북 관계에 장애였던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났다.

러시아와 북한의 급속한 밀착 원인은 무엇보다 세계정세를 읽는 두 나라의 시각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2023년 3월 새롭게 발표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서 미·서방과 ‘문명적’으로 단절하고, 중국, 인도, 이란과 같은 지역 대국 및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반미, 반서방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²⁾ 러시아는 미국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극 체제(unipolar system)는 이미 와해하고 있으며, 세계는 몇 개의 지역 대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극 체제(multipolar system)로 이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다극들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또한 다극화 국제질서의 신봉자이며, 미·중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1) 『VOA 한국어』, 북한, 미국의 북-러 무기 거래설 비난 연쇄 담화... 대미 대결 국면 속 러와의 밀착 강화, 2023. 1. 30.

2) 2023년 3월 31일 새로 개정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 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2023. 4. 18.

전략적 협력 관계는 확대되는 추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은 유감 표명과 협상 촉구 등 중립적인 수사를 사용하면서 대러 비판을 자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고, 러시아의 요구를 무시해 온 미국과 나토의 책임론을 제기한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러시아와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를 게재하지 않는다.

북한 역시 중·러의 세계정세 인식에 공감하면서 이들 나라와 함께 반미 연대를 결성하고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과의 협상으로 제재를 벗어나 보려던 기존 전략을 전면 수정한 듯 보인다. 2021년부터 연속적인 탄도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고,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한편,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정식 명칭은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2021~25)’)의 세부 목표들을 빠른 속도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현재 북한의 국방력 발전 계획은 80% 가까이 진척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은 세부 목표 가운데 실패했거나 부진한 분야(정찰위성, ICBM 재진입, 핵잠수함, 전투기 등)를 러시아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한다.³⁾

2023년 9월 13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에 개최된 정상회담은 반미를 매개로 한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연대감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군사 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할 가능성을 대내외에 현시한 기회였다. 일단 회담 장소가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였다는 사실이 북·러 군사 협력을 시사하기에 충분했다. 푸틴 대통령 자신도 북한의 위성 개발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기 위해 우주기지를 회담 장소로 선정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높였다.

더욱이 김정은을 수행해 러시아로 건너간 북한 수행단의 면면이 이 같은 의심이 충분히 근거가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2위인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뿐만 아니라, 김명식 해군 사령관, 김광혁 공군 사령관 등 북한군 수뇌부가 총출동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일행은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도 나흘 동안 콤소몰스크나야무레에 있는 신형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57 생산 공장,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 등, 극동 지방의 러시아군 주요 거점과 본부를 두루 시찰했다. 북한은 이번 러·북 정상회담과 극동 군 시설 시찰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김정은 치적 쌓기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3)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2023. 10. 6)에 참석한 북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른 것임.

〈표 1〉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 분야⁴⁾

무기 체계	필요성	최근 행보	협력 가능 내용
우주발사체 (정찰위성)	- 최우선 국방력 강화 정책 - 한국 정찰위성 개발 경쟁 차원 - 미사일 운용	- 김정은, 방러 행보 - 우주기지 방문 - 전투기 생산기지 방문 - 푸틴, 대북 우주 협력 발언 -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훈국 공개 - 기존 국가우주개발국을 확대 개편 - 항공기 개발 협력을 위한 카운터파트너 위상으로 조직 개편	- 발사체 및 위성체 성능 개선 지원 - 엔진 기능 개선 - 송수신 체계, 광학 카메라, 조종 및 운용 기술 협력 - 과학 기술자 교류 프로그램
공군 현대화	- 공군력 절대 열세 - 러시아제 노후 기종 보수 및 대체 - 무인기 전략적 기술 협력		- 전투기 '미그-29', 폭격기, 공격기 등 노후 기종 현대화 업그레이드(디스플레이, 조종 능력) '셋별-4'형 고고도 정찰기, '셋별-9'형 고고도 무인공격기 등에 대한 기술 협력 및 양산 체계 지원 -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및 북한 무인기 현대화
방공망	- 한·미 공군력 및 미사일 대응 - 전투기 공군 전력 증강에 드는 막대한 비용 고려, 반항공 및 반미사일 방공망 현대화 - 러·북 미사일 방어 공동의 이해 - 동해상 한·미·일 전력 차단 및 견제		- 러시아 S-400 기반 기존 대공 미사일체계 현대화(레이더, 요격체계) - 중국 HQ-9 모방형 '변개-5, 6, 7'호 기능 개선 - 러·북 미사일 방어 훈련
잠수함	- 해군력의 절대 열세 - 김정은,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10개년 계획' 구상 언급 - 국가 핵억제력 구성 부분 임무 수행	- 방러 직전 행보 - 해군절 연설 - 수상함 탑승, 함대함 미사일 발사 참관 '해군무장장비 현대화 10개년 계획' 언급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 및 개조 계획 공개	- 기존 보유 로미오급 잠수함 개조 기술 지원 - AIP(공기불필요추진시스템) 등 구조 및 기능 개선 - 기존 보유 수상함 개조 및 성능 개선 지원

그런데 서방에서는 급속도로 가까워진 러·북 관계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탄약과 포탄, 기타 군수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제 탄약·무기의 러시아 제공설은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러·북 정상회담의 직접적인 동기 역시 북한의 군수물자 제공에 대한 러시아의 답례라는 것이 미국과 서방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이 있는 지 한 달여가 지난 10월 13일,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비(John Kirby)는 1,0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미 러·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으로부터 러시아로 넘어갔고, 이 안에는 탄약을 비롯한 군수물자가 실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측은 위성 증거 사진과

4) 이 표는 다음 문헌에 실린 표를 전제한 것임. 홍민, 「북한의 군사 주요 동향」,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 자료집』, 2023. 10. 6, pp.20~21.

운송 경로까지 제시했다. 11월 1일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내놓았다. 북한이 100만발 이상의 포탄과 기타 재래식 무기를 러시아에 보냈으며, 최대한 많은 양의 군수물자 전달을 위해 군수공장을 풀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⁵⁾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100만발의 포탄 거래로 북한 측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으로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사용하는 155mm 포탄의 가격이 1발당 3천달러(약 400만원) 수준으로 치솟았고, 북한이 비슷한 가격에 포탄을 러시아에 넘겨줬다면 러시아는 3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⁶⁾ 이는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에는 엄청난 액수다. 한국은행의 평가에 따르면, 30억달러는 북한 GDP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다.⁷⁾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의 글로벌위협및보안센터 소장 킹 말로리(King Mallory)는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은행 시스템 이용, 기술 이전, 해외 무기 부품 구입 지원 등이 포함된 지원 패키지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⁸⁾

한국은 물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북한과의 군사 협력 및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말도록 러시아에 경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정부는 두 나라 간 거래와 관련된 보도가 미국의 ‘선전전’에 불과하다며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기는 어려울 터이지만,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규모의 군사 거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동북아 안보 정세에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것은 확실하다.

III.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북한의 대(對)중동 커넥션

러·북 밀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의 대중동 커넥션이 불거졌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북한과 하마스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팔레스타인과 북한 사이의 군사 협력 관계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21년 국제 군사 전문 분석 그룹 ‘오릭스(ORYX)’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하마스 내 군사 조직인 ‘이жат딘알قات삼(lzz ad-Din al-Qassam) 여단’은 여러

5) 『동아일보』, 「국정원 “北, 러시아에 포탄 100만발 이상 제공”」, 2023. 11. 2.

6) 『연합뉴스』, 「「재외공관 연쇄폐쇄」 김정은 속내는? “러와 무기거래가 더 짊어질”」, 2023. 11. 3.

7) 『경향신문』, 「북한 경제 3년째 역성장 ... GDP 20년 전보다 낮아」, 2023. 7. 28.

8) Bloomberg, “Kim Jong Un Sees Bigger Cash-Cow in Russia Arms Than Embassies,” 2023. 11. 2.

종류의 북한제 무기와 수류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새-2’라는 이름을 가진 대전차 미사일이나 소련이 개발한 휴대용 대전차 로켓발사기 ‘RPG-7’용 ‘F-7로켓추진수류탄’ 등이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파괴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오릭스의 주장이다.⁹⁾

실제로 이번 전투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로부터 압수한 무기 사진을 보면, 로켓 수류탄의 탄두 부분에 붉은 선이 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제작한 ‘F-7’의 특징과 일치한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¹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3일 국제문제 평론가를 자처하는 리광성이라는 인물의 논평을 게재했다. 그는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은 미 행정부의 어용 언론 단체 등이 퍼뜨린 “무군거한 자작 낭설”이라고 일축했다.¹¹⁾ 하지만 이스라엘군 당국은 북한의 변명을 믿지 않았으며,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준비하면서 북한제 무기인 ‘불새’에 대응하는 계획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북한 무기가 어떻게 하마스의 손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과 하마스가 직접적으로 무기 거래를 했을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중간에 다리를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강력한 대북 제재 아래서 외국과의 무기 거래가 엄격히 금지된 북한이 어떻게 제재망을 뚫고 중동 지역까지 미사일 같은 무기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은 위장과 터널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위장은 무기를 가득 채워 넣은 상자나 컨테이너를 민수용 기계 등으로 허위 신고한 후 수송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의 무기 위장 운반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2009년 태국 방콕 공항에 착륙한 화물기에서 북한제 로켓탄과 지대공 미사일 등 모두 35톤에 달하는 무기가 압수된 적이 있다. 당시 컨테이너 속 내용물은 ‘석유 굴삭기’로 되어 있었다. 물론 허위 신고였다.¹²⁾

문제는 요행히 이란까지 도착한 무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어 가자 지구까지 운반될 수 있었는지도. 감시망을 피해 공중으로 운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자에는 공항도 없다. 서방의 정보 당국이 추정하는 루트는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 아프리카의 수단까지 옮긴 후, 여기서부터 육로로 이집트를 거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까지 운반되는 경로다. 물론 모든 과정이 밀수다. 특히 이집트에서 가자로 연결되는 루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터널이다. 가자 지구와 이집트 사이에는 비밀스럽게 파들어간 터널이 여러 개 있으며, 이를 통해 무기가 운반된다. 이 터널들 역시 북한 기술로 완성된 것이다. 북한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9) Joost Oliemans and Stijn Mitzer, "Gaza Conflict: Hamas' North Korean Arms," ORYX, 2021. 5. 18.

10) 『중앙일보』, 「하마스, 북한 'F-7 로켓' 사용 정황 포착...이란서 유입 가능성」, 2023. 10. 12..

11) 『자유아시아방송』, 「북, '하마스 북한무기 사용' 의혹에 "어용 언론의 낭설" 반박」, 2023. 10. 13.

12) The Guardian, "North Korean plane carrying smuggled arms seized in Thailand," 2009. 12. 13.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에도 터널 굴착 기술을 전수해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¹³⁾ 이번 이-팔 전쟁을 통해 중동과 북한의 군사 협력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기 밀매는 오랜 기간 제재를 받아온 북한 경제에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다. 하지만 북한이 반드시 경제적인 목적에서만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도 나름의 대의가 있다. 북한은 과거부터 이스라엘을 ‘미제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며 적대시했고, 국가 수립을 위해 싸우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연대감을 보여 왔다. 북한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가 팔레스타인인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북한이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지원한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공격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은, 과거부터 이란,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반미 군사 커넥션을 넓혀왔던 북한에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IV. 러시아의 전략과 반미 연대

러시아 역시 이-팔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북한과 일치한다. 푸틴 대통령은 “중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극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미국의 지배 엘리트와 이를 추종하는 나라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¹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식어가는 상황은 분명 러시아에 희망의 메시지다. 향후 러시아는 세 가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분쟁 상황을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리라 예상되며, 이는 북한에도 반미 연대 강화를 위한 좋은 기회로 인식될 것이다.

첫째는 미국의 고립화 전략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지를 비판하고, 미국의 대중동 정책이 실패했음을 국제사회에 알려 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이-팔 전쟁의 일시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러시아의 네벤자 유엔 대사는 “미국의 위선과 이중잣대(double standard)”를 목도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팔레스타인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은 감싸고 있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향후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난하는 아랍 국가들과 인도, 터키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규합해

¹³⁾ Samuel Ramani, “North Korea’s Covert Alliance With Iran Aligned Militias in the Middle East,” *38 NORTH*, 2023. 10. 23.

¹⁴⁾ ТАСС,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истеблишмент США стоит за конфликтами на Украине и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2023. 10. 31.

반미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두 번째 전략은 유럽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에 맞춰 2023년 2월 유엔 총회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 국가들을 포함해 141개 나라가 결의안에 찬성했다. 중국과 인도 등 32개국이 기권했고 러시아와 북한 등 7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쟁 발발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팔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크게 달랐다. 10월 27일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일본 등 서방 주요 국가들 및 한국을 포함해 44개국이 기권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14개국만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서방의 단일대오가 이-팔 전쟁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알 수 있다. 아랍계 이민이 많은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명확한 이스라엘 지지에 나설 수 없는 속사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유럽의 분열 상태가 러시아에는 희소식일 터이며, 푸틴은 이 기회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어가고자 할 것이다. 더욱이 2024년 3월 대선을 앞둔 푸틴으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는 뚜렷한 증표가 필요한바, 이-팔 전쟁이 푸틴의 임기 연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중국 및 북한과의 연계 강화다. 러시아는 한·미·일 협력 체제 출범이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의 안보 환경을 긴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결속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30일 베이징에서 제10차 상산포럼이 개최되었다. 상산포럼은 미국 주도의 아시아 안보회의인 상그릴라 대화에 대응해 중국이 개최하는 국제 행사다. 이 회의에 참석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가 단결해 미국에 대항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에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또 미·중, 미·러 관계가 악화할수록 중·러는 합동 군사 훈련과 군사 기술 협력의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왔음도 상기시켰다.¹⁵⁾

사실 중국이 러·북 군사 협력이나 러·중·북 반미 연대에 선뜻 가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다. 하지만 미국 패권 종식과 다극화 세계 실현이라는 중·러의 지상 목표가 완수될 때까지 이들 두 나라의 연대는 흔들림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의 선택 여하에 따라 중·러·북 연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될 수 있다. 적어도

15) Russia Today, "Обмен компетенциями: как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амерены наращ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2023. 10. 31.

러시아는 중·러·북 반미 연대의 완성을 위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나 서방이 중·러 관계를 이격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V. 맺음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엇보다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화두는 핵전쟁이다. 푸틴 대통령이 수시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 열병식에 참석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며 박수를 치는가 하면, 러시아 관·학계 인사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러시아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도 철회했다.

미국 패권 종식과 다극화 세계 질서라는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 핵무기 사용을 내비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는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국제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위협이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북한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가 장차 핵 도미노 확산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러·북 밀착에 대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는 많다. 북·러가 급변하는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당장의 필요에 따라 협력을 천명하지만, 공유하는 가치도 없고 상호 신뢰도 부족하기 때문에 깊은 관계 형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강도 높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무력화하지 않는 한,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나 경제 협력을 진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 대북 제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도 동의한 것이라 스스로 이를 무력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근거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례없는 고강도 금융·경제 제재로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는 대가로 더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감수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러·북 두 나라의 관계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그 수위는 다분히 가변적이다.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 미·중, 미·러 갈등의 수준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향 조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결기보다 러시아의 선택이다.

북핵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러·북 사이의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이전은 한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러·북 간 연대의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반미와 주권을 공유 가치로 한 러·북의 연대는, 그 확장 가능성을 포함해, 군사 협력 못지않은 도전을 한국 외교에 던져줄 것이다. 북한은 하마스의 동맹이며 언젠가 미국을 함께 공격할 수도 있다고 한 하마스 고위 간부의 발언,¹⁶⁾ 최근 팔레스타인 거리 시위에 김정은과 푸틴의 사진이 함께 등장한 사실¹⁷⁾이 주는 함의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까닭이다.

16) 『조선일보』, 「하마스 “북한은 동맹국, 언젠가 함께 미국 공격할수도”」, 2023. 11. 6.

17) 『MBC 뉴스』, 「팔레스타인 반미시위 김정은 초상화」, 2023. 10. 28.

참고문헌

- 현승수, 「2023년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의 특징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2023. 4. 18 (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14272&category=53&nav_code=mai1674786581, 검색일: 2023. 4. 20).
- 홍민, 「북한의 군사 주요 동향», 『통일연구원 주최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한반도 주요 현안 워크숍 자료집』, 2023. 10. 6.
- 『MBC뉴스』, 「팔레스타인 반미시위 김정은 초상화」, 2023. 10. 28,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537960_29114.html, 검색일: 2023. 11. 3).
- 『VOA 한국어』, 「북한, 미국의 북-러 무기 거래설 비난 연쇄 담화…대미 대결 국면 속 러와의 밀착 강화」, 2023. 1. 30, (<https://www.voakorea.com/a/6939637.html>, 검색일: 2023. 2. 1).
- 『경향신문』, 「북한 경제 3년째 역성장 … GDP 20년 전보다 낮아」, 2023. 7. 28.
- 『동아일보』, 「국정원 “北, 러시아에 포탄 100만발 이상 제공”」, 2023. 11. 2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1102/121981423/1>, 검색일: 2023. 11. 3).
- 『연합뉴스』, 「‘재외공관 연쇄폐쇄’ 김정은 속내는? “러와 무기거래가 더 짝잘”」, 2023. 11. 3 (<https://www.yna.co.kr/view/AKR20231103111800009>, 검색일: 2023. 11. 4).
- 『자유아시아방송』, 「북, ‘하마스 북한무기 사용’ 의혹에 “어용 언론의 낭설” 반박」, 2023. 10. 13(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israelhamas-10132023094055.html, 검색일: 2023. 10. 20).
- 『조선일보』, 「하마스 “북한은 동맹국, 언젠가 함께 미국 공격할수도”」, 2023. 11. 6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2023/11/06/7LNIKHAYGZEJBOTIQAACYG2Y6E/>, 검색일: 2023. 11. 11).
- 『중앙일보』, 「하마스, 북한 ‘F-7 로켓’ 사용 정황 포착 … 이란서 유입 가능성」, 2023. 10. 1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8777#home>, 검색일: 2023. 10. 21).
- Bloomberg*, “Kim Jong Un Sees Bigger Cash-Cow in Russia Arms Than Embassies,” 2023. 11. 2(<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1-02/kim-jong-un-sees->

bigger-cash-cow-in-russia-arms-than-embassies?embedded-checkout= true, 검색일: 2023. 11. 4).

Oliemans Joost and Stijn Mitzer, “Gaza Conflict: Hamas’ North Korean Arms,” ORYX, 2021. 5. 18 (<https://www.oryxspioenkop.com/2021/05/gaza-conflict-hamas-north-korean-arms.html>, 검색일: 2023. 10. 21).

Ramani Samuel, “North Korea’s Covert Alliance With Iran Aligned Militias in the Middle East,” *38 NORTH*, 2023. 10. 23(<https://www.38north.org/2023/10/north-koreas-covert-alliance-with-iran-aligned-militias-in-the-middle-east>, 검색일: 2023. 10. 29).

Russia Today, “Обмен компетенциями: как Россия и Китай намерены наращ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военной сфере,” 2023. 10. 31(<https://russian.rt.com/world/article/1224257-kitai-rossiya-minoborony-forum>, 검색일: 2023. 11. 3).

The Guardian, “North Korean plane carrying smuggled arms seized in Thailand,” 2009. 12. 13(<https://www.theguardian.com/world/2009/dec/13/north-korea-arms-smuggling-plane>, 검색일: 2023. 11. 1).

TASS, “Путин заявил, что истеблишмент США стоит за конфликтами на Украине и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2023. 10. 31(<https://tass.ru/politika/19156079>, 검색일: 2023. 11. 4).